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수 신	더불어민주당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참 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공개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담 당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1년 4월 29일(목) 총 6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합니다.
3. 공개서한에 대한 각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의 회신처로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마감 : 5월 1일 토요일
- 회신처(이메일) : equalact2017@gmail.com
- 회신처(팩스) : 02)744-7916
- 담당자 : 이종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1대 국회가 곧 1년입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은 ‘지금 당장’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 차별 문제는 ‘나중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더 이상 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점점 더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차별금지법 나중에’로 일관하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책임이 막중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검토·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되었고,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사회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82%),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93.3%),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88.5%).

2021년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함께 하기 위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치른 보궐선거에 귀책사유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어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의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무책임한 정치에 절대 힘을 주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다음 날인 4월 8일 시민 4,382명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특정 속성, 배경을 이유로 시민권의 위계를 나누고 순번을 매기는 사회 구조 바꾸고자 하는 법이며, 모두를 위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욕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 하지 말고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차별금지법 2021년 내 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발의하여 논의하십시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행동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의 시국선언문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벚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꺾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에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가 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
(2021년 4월 8일 한겨레 신문 전면광고 게시)

2.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집중행동

행동1.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목요일행동 <지금당장>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촉구행동

4월 15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월 22일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29일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연대회의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경기, 충남, 전북 등 방방곡곡 전국행동 진행 중

행동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만인선언 #평등하다

2명 이상 모인다 ▶ 선언문을 함께 읽는다 ▶ 영상을 촬영한다 ▶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린다. 4월 25일까지 70여개 만인선언 영상 참여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행동 3. 5월 25일 국회를 흔들 10만 행동 시작!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알린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고 한 사람 더 참여시킨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실천하는 연대체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1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 @equalityact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역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நா다, 국제청년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교연회,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

방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템나 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툴립연대(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2021년 4월 기준 147개 단체)